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7차시, 외부 일반 계시, 로마서 1:18-25 및 요한복음 1:3-9, 내부 일반 계시, 로마서 1:32-2:12-16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외부 일반 계시록, 로마서 1:18-25 및 요한복음 1:3-9입니다. 내부 일반 계시록, 로마서 1:32 및 2:12-16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저는 방금 로마서 1:18-25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말한 것을 명확히 하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외부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은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반역에 대해 분노하신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인 18절은 창조물 속의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이고 이해되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창조물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속성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20절에서 이것을 일반 계시 교리에 맞춰 정리하면, 우리는 A, 계시의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B,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며,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경외롭고 강력하며 신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0. C, 계시의 타이밍은 일정하며 창조 이래로 계속 발생합니다. D와 D, 범위는 보편적이며,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창조가 확장되는 한 멀리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반 계시에 대해 가르친 내용은 시편 19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편 19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맥락에서 일반 계시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과 7절은 주님의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그 전체 구절을 통해 엘로힘에서 야훼로 바뀝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시편 19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하고, 그들은 또한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창조물과 말씀을 통해 그의 증거를 즐기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에는 예배, 기쁨, 경건, 지혜, 즐거움, 고백, 기도가 포함됩니다. 시편 19편의 마지막에서 알 수 있듯이요. 로마서 1장의 문맥은 상당히 다릅니다. 바울이 일반 계시에 대해 가르친 내용은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으며”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바울은 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알려지고, 분명하고, 보여지고, 분명히 보이고, 이해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하지만 이에 대한 인류의 반응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무가치하게 되었고, 그들의 무분별한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창조된 것을 경배하고 섬겼는데, 창조주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21~23절과 25절. 타락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외부적 일반 계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시는 창조 이래로 어디서나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죄인들은 창조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마땅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죄를 지었습니다. 21절에서 25절.

그 결과, 하나님은 죄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18절. 그는 하늘로부터 모든 불의와 남녀의 불경건함에 대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는 그들을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긴다(20절). 그는 인류를 우상 숭배에 내버려둔다(23절).

도덕적 타락. 24~27. 동성애적 행위와 타락한 정신으로 대표됨.

28절. 따라서 로마서 1장은 시편 19편의 일반 계시에 대한 가르침을 반복하면서 두 가지 진리를 더합니다. 첫째,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충분히 명확합니다.

둘째, 일반 계시 자체는 죄인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타락 이후로 신에 대한 명확한 진리로 축복받았을 때, 죄인들은

그와 그의 진리를 단호하게 억압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9절은 우리의 세 번째 일반 계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9. 1~9를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고, 어둠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의 유명한 서문의 일부로, 네 번째 복음의 많은 주제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그 진리는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추정된 것입니다. 요한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을 언급할 때, 그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9절과 14절에서 그의 성육신에 대해 말하지만, 이 구절의 후반인 17절에서야 그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그는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인 하나님 아들을 언급했는데, 그는 인간 이름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가 되었지만, 요한은 그를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의미로, 처음에 1절과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임을 알고 있으므로 처음에 예수였습니다. 사실 말씀과 예수 사이에 연속성이 있지만, 요한은 그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지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영원의 과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 이름이 되었고 영원히 그의 이름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아들과 구유에 있는 아기 사이에는 인격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두 번째 사람을 말씀과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복음서의 처음 다섯 구절에서 그를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처음 아홉 구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17절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히브리어 구약성경인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방인과 접촉한 그리스도인이나 회당과 접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태초에 신. 요한은 토라 성경의 첫 구절에서 신 대신 단어를 넣어서, 그 단어가 신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단어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원성 교리의 기초를 가지게 되는데, 그 언어는 단어가 신의 면전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절과 단어가 신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단어는 신의 면전에 있었고, 이제 우리는 단어가 신이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컬트 번역은 매우 잘못된데, 이 구절 전체에서 관사 없이 같은 단어인 theos가 사용되었고, 소위 여호와의 증인 신세계역조차도 이것을 신으로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1:1에서 신을 말하고, 저는 컬트에 많은 오류가 있고 그 특정 컬트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혈을 받지 않아 치명적이지만, 그런 것들은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비난할 만한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 바꾸냐고 묻습니다. 오, 그것은 내가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내가 대천사 미카엘이나 단순한 인간 예수, 또는 다시 대천사 미카엘에게 믿음을 둔다면, 이것은 여호와와 증인들이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는 대천사 미카엘이었고, 그의 생명 원리가 인간 예수에게 전달됨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육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명 원리가 대천사 미카엘에게 다시 전달됨으로써, 그는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천사, 사람, 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아들을 믿는 것이 구원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옳듯이, 그를 믿는 약간의 믿음, 그를 믿는 약간의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하지만, 세상에. 아니요, 요한복음 1:6은 관사 없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번역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어때요? 그를 영접한 모든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느니라. 아니요, 신세계 오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같은 단어이고, 관사도 없고, 12절과 6절의 두 곳에서도, 1절에서처럼, 단어 was God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은 두 분이고, 성경은 유대인의 개념, 즉 한 분의 신, 신의 통일성이 있다는 구약의 개념을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한 분의 신 안에 두 분이 계시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불리는 아들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요한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언어가 실제로 포괄적임을 보여준다. 콜로새서 1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이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언어가 포괄적임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포괄적인 범주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없습니다.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창세기 1:1에 대한 암시이지만, 저는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면서, 아들, 성육신 이전의 아들, 즉 말씀은 요한의 용어를 따르면, 영원한 말씀이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창조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자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는 일반 계시의 개념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항상 인식되지는 않지만, 여기 4절에서, 그 안에서,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삶의 장소인 장소는 항상 사용됩니다. 이 단어 조에(zoe)는 4복음서에서 영원한 생명, 모든 창조물의 창조의 근원이었던 영원한 생명이 말씀 안에, 아들 안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이었던 영원한 말씀 안에 거주하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적 소유격, 즉 빛은 능동적 단어이고, 의미는 빛이 인류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만든 말씀, 그리고 창조의

근원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일반 계시를 가르칩니다. 나아가 빛은 어둠 속에서 비춥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몇 단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구두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은 처음에 정확히 이것, NRK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창조가 언급되는데, 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제이며, 또한 빛과 어둠의 언어이기도 한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에 그대로, 창조의 개념 1, 3, 그리고 빛과 어둠의 언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물 안에서 인간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여기서 타락이 소개된다. 빛은 창조물 속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며,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어둠은 빛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빛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상의 빛에 대해 크게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9장인데,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서론의 주요 아이디어는 화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존은 여기서 역 병렬성이나 카이아즘을 사용합니다.

첫째, 그는 영원한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1절에서 3절). 그런 다음 그는 적어도 7절에서 그를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일반적인 평행법을 따랐다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 두 가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말씀입니다(1:1에서 1:3). 그는 빛입니다(7절). 그리고 9절은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 B, B prime, A prime. 단어, 빛, 빛에 대한 화신. 아마 우리는 그것을 조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빛이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9절).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카이아즘, 역행적 병렬 구조는 마치 묶음으로 구절을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론의 주요 초점, 즉 말씀과 빛으로 불리는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처음 다섯 구절에서 보여준 것은 그가 인간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말씀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신인으로 계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의 그리스도론의 두 가지 큰 주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의 두 가지 큰 주제는 그리스도, 육신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27 이하, 28 이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주제가 울려 퍼진다. 생명을 주는 예수, 신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고 서문에서 보여 주는 것은 불트만이 주장했듯이 신비 종교나 그런 것과의 접촉이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이다.

아니요, 창조 기록에 있는 구약의 기초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만든 것, 즉 셋,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 말씀이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사람이 되기 전에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는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말씀은 빛을 전달하는 자, 말하자면, 그가 만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자, 세상의 빛이며, 그분이 생명을 주는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먼저 내 해석 패턴을 따라가고, 그런 다음 노트에서 요약하겠습니다. 창조 전에 아버지 와 함께 계셨던 말씀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에서 나온 말씀 속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요한복음 1:4),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외적인 일반 계시는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5절). 타락 이후로 어둠의 차원을 전제로 사람들은 창조 속의 하나님의 계시와 싸우지만, 구별할 수 없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은 그것을 억압합니다. 요한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그것과 싸웁니다. 타락 이후, 어둠의 차원을 전제로, 사람들과 인간들은 창조물 속의 하나님의 계시와 싸우지만,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십니다, 9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9절은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 말합니다.

참 빛은 그리스의 우회적 지시에 의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참 빛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말합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과 13절은 그가 세상에 존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슬프게도 그 결과는 거절, 10절과 11절, 그리고 수용,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9절.

그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주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10, 11절).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만, 요한의 요점은 표적의 책과 예수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는 처음 12장에서 예수에 대한 주요 반응은 거부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그는 다락방 문을 닫고, 세상에 문을 닫았고, 이제 세상 대신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작별 담화, 위대한 기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를 네 번째 복음서의 끝으로 이끕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은 일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대리인입니다. 계시는 지속적입니다.

계시는 세상에 의해 반대를 받습니다. 계시는 반대자들에 의해 소멸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요약이며, 해석적이고 언어적입니다.

일반 계시의 내적 특징, 마음 속의 하나님의 법, 사도행전 14장과 17장의 섭리를 살펴보면, 일반 계시의 신학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일반 계시의 시기, 장소, 내용,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적 일반 계시에 대한 고전적 본문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2:12에서 16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1:32에서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주셨습니다(28절).

그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은 29절, 온갖 불의, 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설을 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혈떡거립니다.

얼마나 많은 목록인가. 그리고 여기 이 내적 일반 계시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있다. 로마서 1:32에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만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들을 승인한다.

2장 초반에 묘사된 위선자들과 로마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묘사된 사람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하는 바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나쁜 처지에 처해 있다고 여깁니다. 글썄요, 1:32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1:32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 일반 계시의 요점 인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비난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끔찍하게 도용 하게 했습니다. 1:32, 이 죄인들은 그것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추긴다. 죄와 비참함은 1:32에 따르면 동반자와 같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오, 사람아,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자는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너희가 판단하는 자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공공연한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위선적인 죄인들을 모두 정죄합니다. 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인내의 풍성함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개념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2:12는 그것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일관되게 행위나 행위에 근거하며, 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이 믿음을 보여 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그러면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여 주겠습니다. 글썬요, 두 번째 것만 가능합니다.

행함 없이는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은 정당화되거나 삶, 행위 또는 행함에 의해 반증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든, 내적 일반 계시, 외적 일반 계시에 대한 *textus classicus*는 하나님의 세계와 창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포함돼요. 여기 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는 동굴에 들어가서 빛이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아하! 저는 이 외부 일반 계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여기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양, 별, 달, 빛,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아하! 동굴의 고요함 속에서 불행히도 그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듣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외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네, 심지어 그의 몸 안에 있는 그의 심장도 그의 몸의 일부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인간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2:22-24.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은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 없이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 정죄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죄를 지은 이방인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바울이 행위로 의롭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제가 건너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그 구절은 13절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존 머레이, 톰 슈라이너, 그리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Doug Moo는 이 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그와 동의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신학이지만 제가 건너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7~10절을 건너뛰었고, 13절에서 7~10절을 요약한 것도 건너뛰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주해와 신학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절들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오직 하나의 주해만이 옳습니다.

무가 옳고, 2:7~10과 2:13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나중에 명확히 했듯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존귀, 불멸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 중 하나만이 옳습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의 신학은 옳습니다. 기준은 불가능하고, 선행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선행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디도서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요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내적 일반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모세를 의미하듯 토라가 본성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더라도 스스로에게 율법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신은 그들에게 도덕성을 주셨고, 때때로 그들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시인들은 살인이나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 그들은 왜곡된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족에서는 속임수를 미덕으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문명 사회에서는 아마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법이 없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수녀 그룹인 NONES의 일원입니다. 종교적 헌신은 전혀 없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충실합니다.

어느 쪽도 다른 파트너에게 불성실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바로잡습니다. 그 결혼 생활과 그 가정에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헌신의 원칙, 자녀를 양육하는 것, 존중심 있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 등등에 대한 계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본성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없더라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상충되는 생각은 그들을 고발하거나 심지어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비난하고,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구절의 요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 나는 내 파트너에게 충실한 거야. 왜냐하면 신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는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아니, 그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들은 배우자에게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듭니다. 그들의 연애 생활은 그들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적인,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 아담과 이브는 타락 전에 그것을 가졌고, 타락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계시와 창조를 받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아담과 이브는 무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즉, 인간은 도덕적이며 도덕적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가을에 우리는 부도덕하고, 그것이 그것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일종의 척도, 척도, 기압계, 온도계로, 마음속의 신의 법과 함께 가고, 때때로 그것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때는, 그것은 안 돼, 안 돼, 우리를 때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복잡합니다. 양심을 너무 확대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어떤 때는 작동하고, 때때로 우리의 의식은 예라고 말하고, 때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지미니 크리켓은 자신의 신조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항상 가이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경우에만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칼빈은 율법주의자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죄이고, 그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죄가 될 것이고, 해독제는 양심을 교육하고 물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마도 법률가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신은 인간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셨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압니다. 오, C.S. 루이스가 여기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잘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항상 잘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해요. 글썄요, 모두가, 오, 아무도 날 보지 못할 거야.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둘 거야.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짓게 둘 거야. 그러면 내 양심이 미칠 거야. 경보가 울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다시피, 오, 세상에. 즉,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대한 위법 행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적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것은 창조물과 그 일반적인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계시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며, 다음 강의에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패턴을 따라가며 요약을 읽어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명확히 하고 체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외부 일반 계시록, 로마서 1:18-25 및 요한복음 1:3-9입니다. 내부 일반 계시록, 로마서 1:32 및 2:12-16입니다.